

# 일본 미디어에서 본 80년대 한국 학생운동

구로다 아쓰호(고베대학)

## 1. 시작하며

### 1.1 연구 배경과 자리매김

1980년대 한국에서는 전두환 정권 아래 군사독재 정치가 이루어졌다. 한국은 1987년에 민주화되었는데 이러한 한국의 민주화 실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학생들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한국 학생들은 학원 민주화와 군사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며 때로는 격렬하게 거리에서 데모를 벌였다.

한국의 현대사를 논할 때 필수 불가결한 19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는 민주화 운동의 맥락을 포함하여 이미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학생들과 기독교회, 노동자 등과 같은 운동 당사자의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으며<sup>1)</sup> 선행연구에서도 당시의 학생운동을 해외에서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해 분명히 하지는 않았다. 또 민주화 운동에 미디어가 큰 역할을 했음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는 당시 일본 미디어가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을 어떻게 보도해왔는지에 주목했다. 특히 일본 미디어가 한국의 언론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sup>2)</sup> 일본 미디어가 한국의 학생운동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일본의 대표적인 미디어 중 하나인 ‘아사히 신문’의 관점을 채용하기로 했다.

### 1.2 아사히 신문의 한국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

당시 한국 학생운동에 대한 아사히 신문의 사실을 보면 한국 학생 운동가에 대한 평가가 크게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980년 5월 23일 광주 민주화 운동<sup>3)</sup>과 관련된 내용으로 발행된 사설<sup>4)</sup>은 학생 운동가들의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그들을 냉정함이 결여된 존재로 평가했다. 그러나 5년 후 1985년 5월 서울 미국문화원 점령 사건에 관한 사설<sup>5)</sup>에서 아사히 신문은 학생 운동가들에게 동정을 표하며 이해받아야 할 존재로 묘사했다. (사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주 4와 5를 각각 참조)

이렇게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직후와 1985년 5월 서울 미국문화원 점령 사건 시기의 사실을 보면 한국 학생 운동가에 대한 아사히 신문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자는 학생 운동가들에게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자제할 것을 촉구했고 비판하는

1)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사미·안정원(2012)과 이분일(1999)을 참조. 당시 한국의 거리 상황은 아사히 신문 한국 취재반(1986) 참조.

2) 이미숙(2018) 참조.

3) 광주 민주화 운동은 마나베(2000)를 참조.

4) ‘한국의 소란을 우려한다’ 아사히 신문 1980년 5월 23일.

이 사설에서 ‘학생을 선두로 하는 시민 측에도 자제와 절도가 필요하다. 어떤 시대이든 학생의 열정은 현상 개혁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학생들이 주장하는 요구들이 즉시 실현 가능한 것인가. 많은 절차와 순서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한 걸음 멈춰서서 이러한 부분을 냉정하게 되물을 여유와 용기를 가졌으면 한다’며 학생 운동가들을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서울 사건이 말하는 것’ 아사히 신문 1985년 5월 26일.

이 사설에서 ‘한국 학생들이 서울 미국문화원을 이틀 이상에 걸쳐 점거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미국의 사죄와 ‘군사독재’ 지원 중지를 요구한 것이다.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타국 관리 아래 있는 건물을 점령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야당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 밖에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는 학생들의 마음을 관계자들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학생 운동가에 대한 이해를 엿볼 수 있다.

태도를 보였지만 후자는 정반대로 학생 운동가들에게 동정심과 이해를 표하게 된 것이다.

### 1.3 연구의 질문과 분석 방법

상기 아사히 신문의 한국 학생운동에 대한 태도 변화를 바탕으로 ‘왜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에 대한 아사히 신문의 평가가 바뀌었는지’ 하는 질문을 설정했다.

연구 방법은 1980년대 당시 발행된 아사히 신문의 신문 기사 보도와 사설을 자료로 삼아 연설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당시 아사히 신문의 1980년대 한국에 대한 관심도를 모색하기 위해 당시의 한국 관련 사설 내용 및 키워드에도 주목했다. 그 결과 아사히 신문은 1980년대 한국에 대해, 관련 기사 건수 및 키워드 등장 빈도에서 한국의 민주 운동가 ‘김대중’ 씨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사히 신문이 가지고 있었던 ‘김대중 씨의 이미지’와 ‘한국 학생운동에 대한 이미지 변화’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한국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가 변화한 요인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 2. 김대중 씨와 한국 학생운동의 관계성

### 2.1 김대중 씨에 대한 이미지

그럼 예전부터 아사히 신문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김대중 씨에 대해 애초에 아사히 신문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겠다. 아사히 신문은 김대중 씨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김대중 씨에 대해 1980년부터 1982년 3월경까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전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김대중 씨에 대한 탄압을 그만둬야 한다’라는 논조로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더 나아가 1982년 12월 이후의 사설을 보면 김대중 씨의 인품과 경력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아사히 신문에서 김대중 씨는 점점 ‘인격자’로 묘사되었다. 이를 보더라도 김대중 씨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음은 분명하다.

또한 한국 학생운동의 맥락에서 김대중 씨를 언급한 보도는 그다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아사히 신문은 김대중 씨와 한국 학생운동에 대해 연결점이 없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 2.2 서울 미국문화원 점령 사건

다음으로 김대중 씨와 한국 학생운동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유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령 사건’을 다루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학생 운동가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초래한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서울 미국문화원 점령 사건에서 학생 운동가들은 서울에 있는 미국문화원을 점령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을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 민주화 운동의 당사자인 김대중 씨 등이 농성 중지를 요청하는 서간을 학생들에게 보내는 사태가 발생해 결국 학생들은 스스로 철수하게 되었다. 또한 철수 당시 학생들이 발표한 성명에서 철수 사유로 김대중 씨가 서간에서 지적한 내용을 들었다.

### 2.3 아사히 신문에서 본 서울 미국문화원 점령 사건

이어서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 아사히 신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1980년 5월에 발생한 광주 민주화 운동은 김대중 씨와 관련이 깊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을 주장하고 행동한 것이 김대중 씨를 ‘위대한 인물’로 높게 평가하던 아사히 신문에 좋은 인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으며 ‘위대한 인물’인 김대중 씨를 생각해 점령 사건을 일으켰다고

여겼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행동은 ‘위대한 인물’ 본인이 서간으로 농성 중지를 직접 요청하는 사태에 빠졌다. 아사히 신문의 눈에는 김대중 씨를 위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학생들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내 여론의 상당한 비난을 받고 김대중 씨 당사자의 이해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점령 사건에 대한 아사히 신문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심경과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학생들을 가엾게 여겼을 것이며 점령이 아무리 불법 행위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3. 한국 학생운동에 대한 인식 변화

제2장에서는 서울 미국문화원 점령 사건에 대한 일련의 흐름을 아사히 신문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해 검토했다. 이번에는 그 현상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아사히 신문이 가지고 있었던 김대중 씨에 대한 이미지가 한국 학생운동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쳤음을 엿볼 수 있다. 아사히 신문은 원래 양측의 관계가 희박하다고 생각했으나 해당 사건을 계기로 김대중 씨와 한국 학생운동의 관련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도 바뀌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당 사건의 학생 운동가들의 동기와 행동을 통해 한국 학생운동을 김대중 씨와 ‘비슷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 김대중 씨는 앞서 언급했듯이 아사히 신문이 높게 평가하던 존재였다. 그러므로 한국 학생운동을 김대중 씨와 ‘비슷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 역시 변하게 된 것이다.

### 4. 마치며

본 연구는 일본 미디어인 ‘아사히 신문의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가 왜 바뀌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서울 미국문화원 점령 사건을 사례로 들어 한국 학생운동과 김대중 씨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분명한 것은 서울 미국문화원 점령 사건을 계기로 아사히 신문이 한국 학생운동을 ‘김대중 씨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사히 신문이 예전부터 높게 평가했던 김대중 씨와 한국 학생운동의 관련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한국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얻은 견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1980년대의 한국 학생운동에 대해 운동 당사자 이외의 관점, 즉 아사히 신문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생각한다. 또, 당시 한국의 학생운동이 해외에서 어떻게 주목받았는지에 대해 검토해보는 관점을 제공했다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과제로는 1985년까지의 내용만 다루었으며 1987년 한국이 민주화에 이르는 경위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민주화 등과의 연관성은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朝日新聞韓國取材班『韓國の素顔』朝日新聞社、1986年。
- 淺見雅一・安廷苑『韓國とキリスト教』中央公論社、2012 年。
- 李美淑『「日韓連帶運動」の時代：1970-80 年代のトランスナショナルな公共圏とメディア』東京大學出版會、2018 年。
- 大畑裕嗣『現代韓國の市民社會論と社會運動』成文堂、2011 年。
- 『聞蔵II ビジュアル』朝日新聞記事データベース <http://database.asahi.com/index.shtml>  
(最終確認2021年1月31日)
- 金榮鎬『現代韓國の社會運動：民主化後・冷戦後の展開』社會評論社、2001 年。

- ・ 木村幹『民主化の韓国政治』名古屋大學出版會、2008 年。
- ・ 眞鍋祐子『光州事件で讀む現代韓国』平凡社、2000 年。
- ・ 眞鍋祐子『烈士の誕生』平河出版社、1997 年。
- ・ 文京洙『新・韓国現代史』岩波書店、2015 年。
- ・ 李分一「韓國の第五共和國制と新旧教會の民主化運動—政治變動と教會の役割—」『國際政治』第121号（1999年）122-139頁。

(번역 책임자: 김민경)